

간호사 해외진출 현황 분석

A study on global presence of Korean nurses

우정희(건양대학교)

차 례

1. 서론
2. 간호사의 해외진출 현황
3. 간호사의 해외진출의 장애요인
4. 간호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5. 결론

■ keyword : | Nurse | Globalization | Oversea job |

1. 서론

세계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인력이 국제 간 이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 간호사의 국제이주는 특히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광부와 함께 간호사를 서독으로 파견했던 것이 간호사의 해외진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후 1970년대에 중동지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진출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간호사들의 입장에서 국제적 이동의 최종 기착지로 여겨왔던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하여 외국 간호사 취업이 다소 어려워지게 되자 더불어 우리나라의 간호사 임금수준의 급상승 등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해외취업을 위한 이동이 줄어들었다. 이때부터 해외진출의 주도는 정부주도형에서 개인 주도형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데 최근 통계청자료[1]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7.4%이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계열은 그동안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분야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대학마다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머지않아 간호사 공급도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급과잉으로 말미암아 전문인력 양성이 바로 유희인력으로 전락하는 것은 높은 청년실업률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입장에서는 학교평가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간호분야 마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유희인력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다행인 점은 간호 분야는 여전히 해외

진출에 대한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WTO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하여 국내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의향을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의 83.2%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예상되는 간호 분야의 국내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호사의 해외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간호사의 해외진출현황 및 이들이 해외진출의 장벽이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간호사의 해외진출 현황

2.1 배경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의료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있는 시점과 병원의 이윤과 맞물려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입원환자인 경우 중증도가 높아지고 간호사에게는 업무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간호서비스는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확대 혹은 다양해지고 만성질환이나 노인인구증가 등으로 장기적인 간호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매우 제한적인 직업으로 국한되었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해지면서 교대근무와 같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

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있을 때, 공급자인 간호사 개인에게는 보다 나은 임금이나 근무여건이 이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 1960년대 서독으로 해외취업을 간 간호사는 국내 유흥인력의 활용으로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다. 국내 간호사 임금수준 상승이나 미국 이민법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해외취업이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IMF 시기에는 중소병원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간호분야도 43%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면서 다시 해외취업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2].

2.2 영문면허발급 현황

강창희·윤순녕[3]에 따르면 한국 간호사가 2001년~2002년간 영문 간호사 면허증명을 발급받은 수는 총 5,447명이었다. 이들의 발급 목적은 <표1>과 같다.

표 1. 영문간호사 면허발급 목적

년도	외국간호사 면허	해외취업	유학	선교·자원봉사	기타	합계(%)
2001	1,129 (52.4)	497 (23.1)	135 (6.3)	11 (0.5)	381 (17.7)	2,153 (100.0)
2002	2,020 (61.3)	794 (24.1)	151 (4.6)	13 (0.4)	316 (9.6)	3,294 (100.0)
합계(%)	3,149 (57.8)	1,291 (23.7)	286 (5.3)	24 (0.4)	697 (12.8)	5,447 (100.0)

2년 간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외국 간호사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영문면허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해외취업으로 나타났다. 외국간호사 면허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차적인 단계라 생각된다. 즉 영문간호사 면허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취업을 고려하는 잠정적인 대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된다.

표 2. 대상 국가별 외국 간호사 면허취득 응시 현황

년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01	918 (81.3)	68 (6.0)	60 (5.3)	58 (5.1)	17 (1.5)	8 (0.7)	1,129 (100.0)
2002	1,787 (88.5)	147 (7.3)	28 (1.4)	28 (1.4)	28 (1.4)	2 (0.1)	2,020 (100.0)
합계(%)	2,705 (85.9)	215 (6.8)	88 (2.8)	86 (2.7)	45 (1.4)	10 (0.3)	3,149 (100.0)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이 2,705명(85.9%)이고 뒤를 이

어 캐나다가 215명(6.8%)으로, 북미대륙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42명(49.0%), 30대가 1,173(37.3%), 40대가 412명(13.1%)으로 20, 30대와 같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 별로는 3년제가 1,888명(64.1%), 4년제가 1,055명(35.9%)로 나타났고, 이는 이은주·손정태[4]의 연구에서도 해외취업 의향은 20대가 40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출신대학별로는 3년제에서 학사로 편입하는 제도인 RN-BSN프로그램을 졸업한 간호사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국제적 이동의 동기측면에서 생각해보면 4년제 학사학위 간호사에 비해 아무래도 국내에서 임금이나 승진과 같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년제 출신이 더 많이 계획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3 해외취업 현황

우리나라 간호사의 해외 취업은 국가별로는 영문면허 발급요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738명(57.2%)로 가장 많았고 영국 11명(0.9%), 캐나다 7명(0.5%)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표 3>과 같다. 불분명한 자료가 41.4%나 되어 분석이나 해석이 제한되지만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 간호사를 채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며 그 외에도 호주 등이 포함된다. 공급 국가는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최종 기착지로 가장 선호하는 미국인 경우는 캐나다, 홍콩, 일본,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푸에토리코, 대한민국, 영국, 베트남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아일랜드, 필리핀과 영국에서 이동하며 그 외에도 호주에는 중국, 독일,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영국에서 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표 3. 대상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년도	미국	영국	캐나다	기타	합계(%)
2001	246(49.5)	7(1.4)	5(1.0)	239(48.1)	497 (100.0)
2002	492(62.0)	4(0.5)	2(0.3)	296(37.3)	794 (100.0)
합계(%)	738(57.2)	11(0.9)	7(0.5)	535(41.4)	1,291 (100.0)

이외에도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취업을 한 주요 국가

중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서 2002년 사이 172명의 간호사가 취업하였던 것으로 보고 되었다.

2.4 해외면허 취득 방법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진출을 위해 관심을 갖는 주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외면허 취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2.4.1 미국

미국의 경우는 NCLEX-RN(National Counci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이라는 간호사면허시험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선별한다. 시험은 미국 간호사 면허관리국에서 주관하며 미국 각 주와 괌,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등에서 실시한다. 한국간호사의 경우,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근래 최소 1년간의 임상실무 경력을 요구한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면허를 얻고자 하는 주 간호국에 연락하여 응시원서와 안내책자를 전달받고 일반적으로 응시원서, 대학졸업증명서, 간호사면허증(영문), 시험센터 이용신청서 등의 서류와 응시 및 이용 수수료를 수표로 송금하여야 한다. 또한 전 학년 영문 성적증명서(실습시간이 기재되어야 함)를 지원자가 졸업한 대학 측에서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험일정은 미국 내 각 주 207개 Computer Testing Center에서 실시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험을 볼 수 있는 허가서를 발급하며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유효기간 내에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국 간호사인 경우 한 때 국내에서 시험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차단되어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미국령인 괌에서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출제경향은 우리나라의 국가고시원과 유사한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원에서 시험문항을 개발하는데 3년마다 미국 전역의 신규 간호사 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제 진행하는 간호업무를 분석한 후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고 영역별 출제비율을 결정한다. 출제범위는 <표 4>와 같이 간호과정 5단계와 대상자 요구 4개 범주를 놓고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과목들을 간호모형에 의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실무에 근거를 둔 문제, 즉 실질적인 환자교육,

간호행위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등을 다룬 문제들을 주로 출제한다.

표 4. 미국간호사면허시험 출제범위

간호과정 (Nursing Process)	Assessment	20%
	Planning	20%
	Analysis	20%
	Implementation	20%
	Evaluation	20%
대상자 요구(Client Needs) 측면	Safe Effective Care Environment	12~24%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12~24%
	Psychosocial Integrity	10~22%
	Physiological Integrity	36~60%

이외에도 Computerized Simulation Testing이라는 가상 모의 임상게임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매년 300~400명 이상 응시하여 합격률은 1차에서 70~80%수준이며 재 응시인 경우 90% 정도로 합격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처럼 미국 이외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은 외국인 간호사가 미국간호사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치러야하는 일종의 예비시험인 CGFNS(the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테스트는 영어와 전공으로 나뉘며 최근 영어시험이 Visa Screen으로 대체되었다. 비자스크린을 통과하려면 TOFEL은 물론 TWE(영어쓰기), TSE(영어말하기)등 3개 시험에서 540점, 4.0, 5.0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미국간호사 면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민이나 취업을 원할 때 유용하며 의료시장 개방이나 미국 유학을 원할 때 이점이 많다.

2.4.2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외국인 간호사가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우선 캐나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각 주에 있는 간호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캐나다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간호협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거나 실무에서 떠난 지 5년이 넘는 경우에는 간호협회에서 지정한 대학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쳐야만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은 년 4회 실시되며 1인당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시험출제 경향은 주로 캐나다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4.3 호주

호주의 경우는 대학에 편입해 졸업하거나,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마치면 검증을 거쳐 호주 간호사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면허 시험제도는 없다. 그러나 단기교육과정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영어능력, 임상경력, 성적증명서 등을 검증한 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등 몇 개 대학과 유학원에서 호주의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간호학사 취득 및 공인 간호사등록을 주선하고 있다.

2.4.4 뉴질랜드

다른 나라에 비해 간호사 면허취득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 세계 70여 개 국에서 외국인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간호사 면허관련 제반 업무는 보건성 산하의 간호협회에서 담당하며 외국인 간호사인 경우 서류심사 및 영어능력 평가를 거치게 된다. 1차적으로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한국 간호사 면허와 간호학사 학위 취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임상 경력은 필수 조건은 아닌 반면 학사학위는 필수요건이다. 뉴질랜드의 간호교육과정은 모두 학사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대학 졸업자는 뉴질랜드 간호대학에 편입해 졸업한 후 학사학위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차에서는 영어능력평가를 하며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이나 CGFNS 합격자, 최근 2년 내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통과된다. 그 이외에는 TOFEL 600점 또는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10점 만점에서 7.0점 수준이상이 되어야 한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영어능력평가도구인 IELTS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있는 영국문화원의 어학교육원에서 주관한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간호협회로부터 면허증을 받기까지는 8~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면허를 취득한 외국간호사는 현지인과 동등한 취업기회와 대우를 보장받게 된다.

3. 간호사의 해외진출의 장애요인

간호사의 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은 교육수준, 경력, 성

격, 의사소통, 문화적응의 요소가 필요하며 이중 문화적응이나 의사소통은 언어능력이 핵심일수 밖에 없다. 선행연구[3, 4]에서 보면 간호사들이 해외진출에 대한 의향과 실제 취업 가능성이나 준비정도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해외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해외로 진출한 국내 간호사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교육과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동을 선택하였지만 해외 이주 간호사들은 이주국의 임상현장이 기대와는 다른 경우 당황스러워한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해외진출 시 최종 기착지로 고려하고 있는 미국은 전체 간호사의 5.4%, 약 16만 명이 외국에서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이며 이중 한인 간호사는 이들 중 2.5% 수준이다. 외국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간호사에게 미국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은 보건의료, 복지, 안전의 맥락에서 간호사의 실무역할을 위해 기대되는 지식, 인간관계, 의사결정, 정신운동적 기술의 적용이라고 하였다.

다문화주의 국가인 미국은 보건의료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므로 외국 간호사들의 임상실무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간호사는 유럽권이나 영어권 출신에 비해 서양문화 적응, 언어장벽과 외국인 차별에 대처해야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6]. 미국에서 장기간 취업하여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언어능력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수준도 안되는 선행연구[7]결과도 시사하듯, 언어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미국과 같은 영어권 나라에 진출하고 적응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능력은 듣기, 말하기, 쓰기, 신체언어 이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다학제 간 협진이 요구되는 간호직의 특성상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핵심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치료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치료적 인간관계란 환자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고 적절한 대처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목표지향적인 관계이다. 환자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관계 속에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간호사면허를 가지고도 간호실무에서 환자와 의료팀이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표준이

상의 간호실무능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서의 좌절, 환자나 환자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 당황하기도 하고, 전화지시를 잘못 이해할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응급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것을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주의 문화사회에서 성장한 아시아인들의 경우, 언어문제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며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좌절로 동료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소외감, 외로움 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외국인 차별의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이주국 임상에서 동료나 상사, 환자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간호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상사로부터 지나친 감독을 받아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굴욕감과 분노를 가지게도 할 수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매년 1,000명 정도 NCLEX-RN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보다 나은 근무여건이나 직업의 사회적 위치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진국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나 2세대의 생활터전을 고려한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2].

간호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장애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진출의 기대가 높은 젊은 층을 위한 것들은 국내 대학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간호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사가 실무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 경력, 성격뿐만 아니라 문화적 적응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요구된다. 문화적 적응과 의사소통능력은 사실 상 다문화 배경의 환자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 언어적 요소가 핵심인 경우가 많다.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들이 해외진출을 원하지만 실제 실행하지 못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격려가 필요한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공감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수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정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이나 수준에서는 많이 상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간호사 면허시험의 경향에서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배운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사한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과목을 교과과정 내에서 통합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 시험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머지않아 간호사면허시험이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경향으로 변화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경력에 있어서는 미국은 실무경력을 최소 2년 이상을 요구하나 우리나라 미국진출희망자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영주권 획득이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현재 기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 시기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미국보다는 조건이 덜 까다로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방법도 권장할만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취업 후에도 미국 적응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문화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나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교육계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04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립의료원간호대학 및 리쿠르트에이전시를 연결하여 영어연수비를 지원하는 간호사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일부 에이전시들은 과당경쟁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송지호[2]는 간호사해외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언어능력향상에 유용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둘째, 문화적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실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인간관계기술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다섯째, 비자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지호[2]는 이상을 주장함과 동시에 위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국대학과 연계하는 RN-BSN과정이라고 하였다.

RN-BSN과정은 학사가 아닌 사람이 간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1~2년 정도 편입하는 과정이다. 최근 RN-BSN과정을 운영하는 미국 간호대학 중 하나인 일 대학이 미국 취업을 원하는 우리나라 간호사가 온라인으로 1, 2년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RN-BSN제도를 개설하였다. 3년제 간호사인 경우는 2년제, 4년제 간호사인 경우는 1년제 과정을 수료하면 비자스크린을 면제해준다. 이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으며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문화적 적응이나 언어습득이 미국 현지에서 부딪히며 겪을 때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간호사 자신은 자신의 현실과 성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해외 진출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청년실업률을 낮추면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직업을 개발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한 교육계를 포함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관심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해외취업반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한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반영한다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간호 실무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문화적 적응이나 의사소통에서 자신감 가지므로 더욱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간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국내 우수한 노동력이 과다하게 유출되거나 공급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의 측면이 우려[9]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간호 분야에도 공급과다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한 인력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교육계 등의 간호현장에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교육제도가 미국과 유사한 점은 미국 간호사면허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유리한 조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

는 간호사들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교육과정 개발되고 운영하는 대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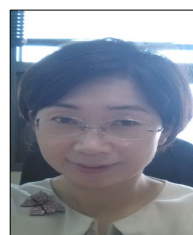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통계청, 통계청 2013년 5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 [2] 송지호, 세계화와 간호사의 해외취업, 간호학 탐구, 제15권 제2호, 2006년
- [3] 강창희, 윤순녕, 한국 간호사의 국제적 이동,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5년
- [4] 이은주, 손정태, 병원간호사의 해외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0년
- [5] 대한간호협회, 해외면허취득안내,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foreign_exam.php
- [6] 정영미, 재미한인간호사의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4년
- [7] 홍경자, 윤순녕, 강창희, 한국간호사의 해외취업실태와 실무 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9-10월호, 2004년
- [8] 서금숙, 미국병원에서의 한인간호사 임상실무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 [9] Stalker,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년

저자 소개

● 우 정 희(Chung-Hee Woo)

정회원



- 1987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간호학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도구개발, 보건콘텐츠